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습관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재 안에서 삶**

10/7 월요일

아침의 누림

딤페전 1:3-4

3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딤페전 3:15

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롬 12:5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엢 1:10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엢 3:8-9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엢 2:10

10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가 다루는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바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모든 다른 가르침들을 제쳐 두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한 그분의 가정 행정, 곧 그분의 계획이다. 그분의 분배는 경건의 생활을 산출한다.

하나님의 분배에서 산출되는 경건한 생활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 ...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의 분배에서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그릇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 자기 자신의 취향과 선택과 선호와 느낌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의지 등을 가진 살아 있는 그릇들인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과 협력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강하게 훈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실 수 없다. 우리의 영은 받아들이고 보유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입구이다. 우리의 영이 활짝 열릴 때 우리의 온 존재가 열린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어 주실 수 있는 길이 생긴다. 하나님의 분배는 우리의

동역에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의 동역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 개정판, 18 장, 240-24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육십육 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성경의 이 두 끝 사이에 역사와 가르침들과 예언들과 예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만 성경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이자 마음의 갈망으로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아버지로서 아들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께 선택된 백성 안으로 분배하여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총만 즉 하나님의 표현을 위하여 그분과 동일하게 될 것이다

경륜은 분배를 위한 계획을 수행하도록 이루어진 안배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안배로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요소와 생명과 본성과 속성과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을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신성한 근원에서 나온 신성한 요소 안에 있는 신성한 본질로 조성됨으로써 재건축되어 신성한 무언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하나님께서 신성한 조성을 통해 우리를 재건축하신 후에 우리는 주 예수님과 같이 신성하게 인간적이며 인간적으로 신성하게 된다. 육체 되심 이전에 그리스도는 다만 신성하셨지만, 육체 되심 이후에 그분은 하나님-사람, 곧 신성한 본성을 지닌 사람이 되셨다. 지금 그분은 신성하게 인간적이시며 또한 인간적으로 신성하시다.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그분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이제 그분과 동일하다. 즉 신성하게 인간적이며 인간적으로 신성하다.

신성하게 인간적이며 인간적으로 신성한 거듭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 몸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새사람인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삼일 하나님의 총만 곧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이 총만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성경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점으로 시작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끝난다. 새 예루살렘은 삼일 하나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연합이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구성체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다.

이것을 보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개관을 보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욥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68-7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 개정판, 17-20 장; 욥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16, 19, 21, 24, 27-28

10/8 화요일

아침의 누림

창 2:7

7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속 12:1

1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와 부담의 말씀이다.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는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

잠 20:27

27 사람의 영은 여호와와 등이라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요 4:24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고후 4:13, 16-18

13 또한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7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들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영을 가진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계획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그분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로 삼으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곧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자로 사랑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종의 받아들이는 기관을 창조하실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온 존재를 받아들일 역량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스가랴서는 우리 사람의 영에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라고 명령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책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에 관하여 이 책에 계시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엡 1:17-18 상, 3:5).(속 12:1 각주 2)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담는 기능을 가진 사람 안에 있는 특별한 기관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살아 있는 피조물이지만, 다른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들과 다르다. 오직 사람에게만 사람의 영이 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산출하시기 위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셨다 (창 2:7).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생겼다(시 33:9).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차례에 이르자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그분의 생명의 숨을 내쉬셨다. ...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고 신성한 영도 아니며 신성한 생명도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매우 가깝고 신성한 영께 매우 가까우며 신성한 생명에 매우 가깝다.

만일 우리에게 영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과 같을 것이다. 우리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만일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온 우주는 공허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미와 우주의 의미를 여는 열쇠는 하나님의 존재에 있으며 또한 우리가 가진 영에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요 4:24). 이 두 영은 서로를 접촉해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전 6:17). 그럴 때 온 우주가 의미 있게 되고, 우리의 삶도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사람의 영을 간과하고 무시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기까지 한다. ...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법을 주의한다. 오늘날의 사회가 그토록 많은 법률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영의 한 부분인 양심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양심의 기능은 우리가 옳지 않은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를 심판하고 유죄판결 하는 것이다. ... 단지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법의 허점을 찾아서 올바르게 않고 정당하지 않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더 뛰어난 방식으로 산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 밖에 있는 법보다 우리를 더 많이 통제한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영은 거듭났다. 거듭나는 것은 보강되는 것이다. ... 하나님의 생명이 ... 우리의 영 안으로 더해졌다. ...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을 주신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용서와 의와 평안과 기쁨과 같은 하늘에 속한 많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과 화목하게 하심과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에 더하여,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 사실상, 하늘에

속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 안으로 더해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거듭나고 보강된 영 곧 매우 강한 영이 있고 동반자도 있다. 이 동반자는 삼일 하나님이다.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신다.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영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8장 95-9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5-1976년, 1권, 영 안에서 생활함, 5장; 아가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10/9 수요일

아침의 누림

롬 8:16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고전 2:15

15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고전 3:1

1 형제님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할 때에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들처럼 대할 수 없었고, 육체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기들처럼 대하였습니다.

고전 14:32

32 신언자들의 영은 신언자들에게 복종합니다.

고후 2:12-15

12 더욱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렸으나

13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14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15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엡 3:16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벤전 3:4

4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이신,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놓칠 것이다. ... 오직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고 처신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행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자신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영 안에서 살아야 한다(비교 롬 8:6). ... 오직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보존된다(비교 살전 5:17).

오늘날 하나님의 영,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삼일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 안에서 일하신다. 이 두 영은 하나이다. 이 두 영은 연합된 한 영으로서 함께 살고 일하며 존재한다. ... 우리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 주신 성경 안의 최종적인 명령으로 여겨질 수 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1권, 봉사자들과의 교통, 25장, 192-19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여러분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라. 여러분의 혼의 모든 내실은 영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 여러분 안에 있는 중앙 정부는 무엇인가? 유감스럽게도, 나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중앙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형제들이 함께 모일 때 중앙 정부가 통제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기도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처음 몇 분간의 대화 가운데 기도의 분위기가 지속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 정부는 무너진다. 한 형제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 또 다른 형제는 앞서 말한 형제가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 합당하게 그 상황을 다루는 법을 모른다고 말한다. ...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의 영에 주의하지만 형제들과 대화할 때에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이 더 연장하다면, 여러분의 의견은 밖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 외적으로 여러분은 온건하고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적으로 여러분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불만스러워한다. 불만이 여러분의 중앙 정부일지도 모른다.

자매들의 중앙 정부에서는 감정이 대통령과 수상과 참모 총장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는 영을 사용하지만, 화가 나면 자신의 감정을 터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그들은 회개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자신의 성질에 굴복한다.

어떤 성도들의 중앙 정부는 성급한 행동이다. 그들은 영을 주의하지 않은 채 결정하고 행동을 취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고 여긴다.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우리의 영이 정상적인 위치를 부여받는 것 같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우리는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이여, 잘 가라. 기도가 끝났으니 나는 더 이상 네가 필요하지 않구나. 나는 스스로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어.” 이런 식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과 처럼 된다.

심지어 주님께도 여러분을 통제하실 길이 없다. ...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 안에서 여러분을 통제하신다. 여러분이 그분을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통제하실 수 없다. 주님은 전기와 같으시다. 만일 전류가 콘센트를 통과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전등의 플러그를 꽂고 스위치를 켜도 불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영이 우리의 중앙 정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제한받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감히 자신의 의견을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다. 말들이 우리의 입 밖으로 가볍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교만은 깨뜨려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가장 작은 일에서조차도 제한과 제약을 감지할 것이다.

영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할 자유가 있다고 여긴다. 이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쳤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우리의 행동은 거칠었을 것이다. 성경은 사람의 존재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부분인 자신의 영을 철저히 무시해 버린 이들에 대해 “하나님은 ...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롬 1:28)라고 말한다. ... 그러나 구원받은 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게 하신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자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과 심지어 우리의 말에서 우리를 그 분의 엄격한 통제 아래로 이끌기 원하신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1권, 생명 메시지 2, 72장, 582-58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1권, 그리스도를 체험함, 10, 23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권, 활력 그룹, 1 장

10/10 목요일**아침의 누림****딤후 4:7-8**

7 속되고 허무맹랑하게 꾸며 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8 신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에 대해 약속해 줍니다.

딤후 1:6-7

6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행 6:10

10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그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 낼 수 없었다.

단 6:3, 10

3 이 다니엘에게 탁월한 영이 있어 총리들과 지방관들 가운데에서 두각이 드러나자, 왕은 다니엘을 온 왕국 위에 세우려 하였다.

10 다니엘은 그 금령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가서(그의 위층 방 창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 전에 늘

하던 대로 날마다 세 번 자신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우리의 영의 중요성을 보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자연스럽게 처음으로 하는 말은 “오, 주님.”이다 “오, 주님.”이라고 말하며 주님을 부르는 것은 영을 훈련하는 습관 중 하나이다. ...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참되게 주님을 접촉하지 못한 채 판에 박힌 방식으로 기도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영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 주님.”이라고 말하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오, 주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을 접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이다.(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영, 8 장, 9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오, 주 예수님!”이라고 말하도록 자신에게 강요해야 한다. ‘훈련하다’라는 단어는 강제성을 내포한다. 훈련하는 것은 항상 강요하는 문제이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연습하거나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할 때, 그들에게는 반드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훈련하도록 강요한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강해지고 주님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하도록 스스로에게 강요해야 한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 보자.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 사이의 문제일 수 있다. 그때 여러분이 영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혼 전체가 지배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럴 때 혼이 여러분을 사로 잡고 압도할 것이며,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을 억누를 것이다. 그 결과 여러분은 심하게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을 훈련하도록 자신에게 강요해야 한다. 여러분의 영을 훈련하거나 사용하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강요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된다.

디모데전서 4 장 7 절과 8 절에서 바울은 두 종류의 훈련에 대해 말한다. 육체의 훈련 외의 또 다른 훈련은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훈련으로서, 이것은 영의 훈련임에 틀림없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1 장 6 절과 7 절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 어떤 사람들은 이 절들이 우리의 영이 아닌 우리의 은사를 부채질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절들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1 장 6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에 7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 영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하는 그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부채질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영적인 은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은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영적인 은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불이 있다. 사실상 우리의 영이 곧 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려면, 여러분은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야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이루는 이 세 겹의 층을 열어야 한다. 여러분은 입을 열어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런 다음 입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 다음 입을 열고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여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불러 더욱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영을 여는 것이다. 그럴 때 불이 타오른다. 여러분이 침체되어 있다면 깊은 속에서부터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여 “오, 주 예수님.”이라고 거듭해서 불러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솟아오를 것이다.(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8 장, 97-10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4;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10/11 금요일

아침의 누림

행 14:22

22 제자들의 혼을 견고하게 하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딤후 1:7

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벧전 2:25

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시 23:1-6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한 것 없으리.

2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3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들로 안내하시네.

4 제가 비록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를 위로해 줍니다.

5 주님께서 저의 대적들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제 잔이 넘칩니다.

6 제 평생에 선과 자애가 분명 저를 따르리니 저는 여호와와 그의 집에 평생토록 거주하렵니다.

사람의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진다. 제자들의 혼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1) 주님과 그분에 관한 일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견고하게 하고, (2)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권익을 위한 마음을 갖도록 그들의 감정을 견고하게 하고, (3) 그들이 강하여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행 14:22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매우 흥미로운 절이다. 이 절에는 세 가지 항목이 언급되는데,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맑은 생각이다. ... 이러한 이유로 혼은 우리의 영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혼이 세 부분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한 가지나 두 가지나 네 가지 항목이 아니라 세 가지 항목과 함께 언급된다. 영은 혼의

세 부분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므로 이 각각의 세 부분은 반드시 우리의 영과 합당한 방식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의지'는 복종하는 의지가 되도록 영(spirit)에 의해 굴복되어야 한다. ... 능력의 영은 의지가 먼저 영에 굴복되고 그런 다음 복종하게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한다. 사실상,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우리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의 의지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딱딱하고 완고한 의지이다. ... 우리의 의지가 강해지고 능력이 넘칠 때는 오직 영의 통제를 받을 때이다. 믿는 이가 순교자가 될 때 그는 강해진다. 즉 그에게 강한 의지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의지가 완전히 영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지가 영에 굴복되고 복종하게 될 때, 우리의 의지는 강하고 능력이 넘친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되게 능력의 영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영이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주님께 순종하게 할 때, 우리는 매우 냉정해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을 잡아 주는 사랑이다. 우리는 능력의 영뿐 아니라 또한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 우리의 의지가 복종으로 충만해도 사랑의 영이 없다면, 다른 이들을 향하여 냉정하기가 매우 쉽다. 우리는 심지어 그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고, 그들이 반역적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유죄판결 하게 된다. ...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능력의 영이 사랑의 영으로 균형 잡히게 해야 한다. 우리의 영은 능력의 영일 뿐 아니라 사랑의 영이어야 한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의지는 영에 복종적이었고 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은 매우 강했다.

하지만 그분의 영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충만했다. 주 예수님은 강한 영뿐 아니라 사랑의 영을 갖고 계셨다. 그 분은 매우 균형 잡힌 분이셨다. 그분의 영(spirit)은 악한 자인 사탄을 향하여 매우 강하고 능력이 충만했다. 그러나 죄인들과 세리들을 향하여 그분의 영은 사랑과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이것이 참되게 균형 잡힌 것이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이다. ...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된 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균형 잡힐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반드시 '맑은 생각'의 영이 있어야 한다. ...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고 눈멀게 되며, 심지어 어둠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이 잘 잡혀 어리석게 사랑하지 말고, 맑은 생각으로 분명하고 합당하며 냉철하게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을 처리하는 것은 영 그 자체를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을 둘러 싸고 있는 혼의 각 부분을 처리하는 문제이다. ... 샘은 순수하지만 물이 흐르며 유황이나 소금을 통과할 수 있다. 문제는 물이 흐르며 통과하는 통로이다. ... 우리의 생각이 옳지 않다면, 우리의 영은 결코 올바를 수 없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옳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은 결코 올바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의 이러한 부분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의지는 굴복되어야 하고, 감정은 균형 잡혀야 하며, 생각은 맑고 건전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은 능력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며, 맑은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혼의 세 부분이 어떻게 영을 훈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본다. (스트림, 1 권, 영문판, 302-30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스트림, 1 권, 영문판, 298-331 쪽;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2 권, 생명 메시지 1, 26 장

10/12 토요일

아침의 누림**롬 8:6**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히 4:12

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찼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롬 1:9

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롬 2:28-29

28 왜냐하면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외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9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영 안에는 있고 율법 조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롬 8:4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롬 12:11

11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야생마'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생각은 혼의 큰 부분이며, 혼은 우리의 외적인 육체와 우리의 내적인 영 사이에 있다. ...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한 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매우 '번잡스럽다'. ... 만일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깐 사이에도 상상 속에서 전 세계를 헤매고 다닐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영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노래하거나, 주님을 찬양하거나, 주님을 말해 낼 것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제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만 있을 때 그들은 자유롭게 다른 이들에 관해 한담을 하고 교회에 관해 부정적인 말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육체에 두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기를 배워야 한다. 생각을 육체에 두지 말고 생각의 방향을 돌려 영에 두라. 이런 습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한다. 우리의 생각을 육체에 두는 것은 죽음이지만, 영에 두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8 장, 10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히브리서 4 장 12 절은 '분별해 내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 매우 자주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을 속인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악하다는 분별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생각 뒤에 악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것은 혼과 영을 나누는 것과 같은 것이다. ... 원수의 계략은 언제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혼합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세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혼합된 상태에 있다. ... 그러한 혼합이 있을 때마다 영은 패배하고 혼은 승리한다.

한 형제가 자신의 아내에게 다른 형제에 대해 말하려고 하기 전에, 그는 '이것이 나의 영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혼에 속한 것인가?'라고 고려해야 한다. 만일 그것이 혼에 속했다면, 그가 말하는 것은 한담이나 비평일 것이다. 만일 그것이 영에 속했다면, 그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어떤 말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실상 우리 인격 곧 우리 존재는 매우 복잡하다.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악한 육체와 선한 영과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혼이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을 따라야 하며, 모든 일에서 우리의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로마서 8 장 4 절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영에 속하지 않고 혼에 속한 것을 항상 깨어서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자본이며 역량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며,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을 활용하며,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 물론 무엇이 육체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영에 속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혼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몹시 뒤섞여 있는 상황들이 꽤 자주 생긴다. 이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행함은 매우 섬세한 것이다. 영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너무 빠르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잠시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나는 편지에 답장하면서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다. 때때로 나는 편지를 쓴 후에 바로 부치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하였다가 부친다. 그 다음 날에 그 편지에 추가해야 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거나 무언가 잘못 썼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 안에는 영과 육체 사이의 전쟁이 있으며, 영과 혼 사이에는 심지어 더 많은 전쟁이 있다. ... 만일 어떤 것이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말하거나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8 장, 104-10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6-8 장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찬송: 866 (英) 영을 훈련하여 (中:628)

1 영을 훈련하며 몸의 생활해 인간적인 생각 거절하면서.

2 영을 훈련하며 형식 거절해 주만 중심 삼고 서로 교통해.

3 영을 훈련하며 서로 섬기세 타고난 느낌은 거절하면서.

4 영을 훈련하며 주를 의지해 혼 생명 부인해 서로 도우며.

5 영 안에 해방돼 자기 의 벗고 자기 책망 벗고 자의식 벗어.

6 영 안에 해방돼 자기 뜻 벗고 자기 사랑 교만 내려놓으라.

7 죄를 씻는 보혈 주 이름으로 영을 훈련하여 주 승리 취해.

8 영을 훈련하여 주를 접촉해 영으로 그 말씀 풍성 접촉해.

9 영을 사용하여 주를 증언해 영을 사용할 때 우리 만족해.

10 영을 훈련함이 우리 필요라 영을 훈련할 때 주가 인도해.

10/13 주일

아침의 누림

시 34:18

18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가까이하시며 영 안에서 통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네.

시 51:10

10 오, 하나님!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제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막 2:8

8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속으로 따지고 있는 것을 즉시 영 안에서 다 아시고 “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러한 것을 따지십니까?”

막 8:12

12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깊이 탄식하시며 “왜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합니까?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시고,

눅 1:47

47 내 영이 하나님 나의 구주에 대하여 크게 기뻐한 것은

요 11:33

33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울고 또 따라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 안에서 격분하시고 괴로워하시며

롬 9:1

1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하는 것은

고전 2:11

11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엡 6:18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